

글로벌 리더로 뛰는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 남문기

참정권을 통한 해외한민족 결집에 선봉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연) 남문기 총회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8차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750만 해외한민족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남 의장은 대표자협의회 총회장에서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안경률·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 한덕수 주미대사 등 37개국 한인대표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남 총회장은 의장에 당선된 포부에서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 창립정신을 되새기며 밝은 재외동포

사회 구축을 위해 전 세계 해외동포를 망라하는 한민족 협의체로서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체코, 호주, 피지,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 한인 대표자 외 한인 단체장을 포함해 모두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미국내에서 한인회장단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크 김(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김창준(전 연방 하원의원), 잭 피터슨(버지니아 주 상원의원), 애니 팔레오마배가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하였다.

이번 해외한민족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의제는 올해 2010년이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기에 해외 한민족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향후 100년 조국과 세계 번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 해외 한민족의 결집력 강화 △ 모국과의 관계 정립 및 상호 보완 체제 구축 △ 6자 회담에 북한의 조속한 복귀와 핵무기 포기 및 납치자의 조기 귀환 촉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 천안함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 촉구 △ 재외국민 투표방안 마련, 참정권에 따른 우편투표 제도, 순회 투표소 설치와 같은 투표소 확대방안 요청 △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재외동포 사회의 차세대 육성과 지원 및 한국

정부에 모국 대학의 수학 기회확장 개선 요청 △ 국가 브랜드의 고양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식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 △ 외국 운전 면허증을 한국 내에서 사용 요청 등이다.

한편 이번 신입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명예의장에 이민 위 회장(미국), 박병헌 회장(일본)이며 고문에 최병근 회장, 김재숙회장, 김길남 회장, 최광수회장 등이고, 공동의장에 남문기 총회장(미국), 정진 단장(일본), 그리고 수석부위원장 겸 운영위원장에 정효권회장(중국), 승은호회장(인도네시아), 김근수 회장(캐나다), 박정길회장(아중동), 정해명 회장(호주), 한호선 회장(유럽), (남미회장), 허병도(일본) 등이다.

그리고 미국측 운영위원으로 최화섭(서북미 연합회장), 박헌일(서남부 연합회장), 윤재연(중서부연합회장) 신철수(동남부연합회장), 안대식(미네소타 한인회장), 최성복(베트남 한인회장)

헬렌장(중남부 한인회장), 김길영(행정부 회장) 등이다.



남문기 회장 그는 누구인가?

남문기 회장은 29세 되던 1982년 1월, 단돈 300달러를 들고 미국에 건너와 거대한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CEO가 된 입지전적 인물. LA 한인회장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으로 하루 수면량이 4시간을 넘지 않아야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머쥌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실제로 1988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그는 하루에 많이 자도 4시간 30분을 넘기지 않았으며 일을 쉬는 날도 열 손가락만에 꼽을만큼 열심히 뛰었다. 이러한 성실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서도 여실히 그 빛을 발했다.

경영인으로서의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은 “뉴스타부동산그룹은 오늘 현재 전 미주, 캐나다 및 한국 등 50여개 지사망을 구축했고 2011년 말까지 멕시코, 브라질, 호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지에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 세계에 2천여 개 지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전제, 앞으로 “우리의 한국인을 미주로 1천만 명 이주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한국 땅을 전 세계로 넓히는 신 광개토대왕개념의 “영토 확장자”로서, 그리고 차세대 한국인을 미국대통령으로 배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 회장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까지 국토를 넓혔듯, 이제는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미주지역에 대거 이주하

면 자연스레 영토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이고, 한국인이 정착하기 쉬운 미국 땅에 한국인 1000만 명을 정착시키는 걸 꿈꾸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이 한국내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인이 미국, 호주, 중국 등 세계의 땅과 건물을 사고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6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던 남 회장은 5월부터 국내에 부동산학교를 개설해 직접 진출할 계획이다. 돈을 떠나 20여년간 미국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고국에 전수하고 싶다. 2011년까지 뉴스타부동산학교를 한국 곳곳에 개설해 실전에 필요한 선진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남 회장의 뉴스타그룹은 미국내 50개 지사에 부동산학교를 비롯해 에스스코회사, IT회사, 광고기획사, 보험사, 법무법인, 용역

회사 등 8개 계열사를 두고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넓은 땅에 코리아를 알린, 걸어 다니는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美주정부 각 정, 재계부처에 그의 인맥은 실무자로부터 장·차관까지 폭넓게 퍼져있어 “마당발”로 통한다. 그는 ERA Leadership Team Awards 수상, 지난 1996년 소수민족기업협회 한국인 최우수경영인상 수상, 자랑스러운 건국인 상, 건국대 명예정치학박사, 미국부동산 초청강사, 전 미주 및 캐나다 한국에 150회 이상 “How To Succeed” 순회강연을 통해 ‘한국인’의 자긍심은 물론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국 땅에 한인 대통령을 만들자” 외에 “잘 하겠습니다” 등 부동산 전문서적인 “미국 부동산” 이 있다